

SK, 화학산업 동유럽 진출 물꼬

SK케미칼, 4100만달러 투자 폴란드에 PET 12만톤 플랜트 건설

SK케미칼은 EU시장을 겨냥해 폴란드에 Bottle 제조용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12만톤 합작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자본금 3300만달러이다.

폴란드의 합작공장 건설은 SK케미칼이 턴키베이스로 공급하게 되는데 2년간 약 4100만달러(약 510억원)의 플랜트 수출효과가 발생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판매가 시작될 현지법인의 매출규모는 1억1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유럽시장의 PET수지 제품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은 PET수지 사업의 기술을 제공해 발생하는 약 1300만달러(약 16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현지법인에 투자할 계획이다.

합작투자에는 SK케미칼과 함께 폴란드 최대의 화학기업인 Anwil이 20%, 유럽개발은행이 10%의 지분을 각각 참여하며 4000만달러는 유럽개발은행(EBRD)을 포함한 유럽지역 금융기관이 프로젝트금융으로 참여한다.

SK케미칼은 현재 국내 22만톤, 인도네시아 8만톤의 PET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합작투자로 유럽지역에서 12만톤을 확보함으로써 총 42만톤을 상회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 앞으로 중국, 중남미 등으로 투자지역 확대해 2010년까지 PET 총 100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영진/화학저널 석유화학 담당 취재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10/30>